강건함의 간구와 추구
(요삼 1: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은 마지막의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의 '강건하기를'이라는 구절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해서 함께 생각하며 '강건함의 간구와 추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강건함의 간구와 추구'
간구와 추구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도요한의 간구가 곧장 영혼이 잘된 가이오가 자기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추구해야 될 일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래야 되는 것은 아니다'는 전제하에 사도요한의 강건함의 간구와 그 내용이 육체의 건강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가이오가 그 육체의 건강을 마음으로 추구해 들어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자는 내 육체의 건강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자가 몸의 건강을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경주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그냥 강건함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이 구절의 해석 자체만으로도 과연 사도요한이 백 퍼센트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간구한 것이냐 라는 결론도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디모데전서 1장 10절이나 6장 3절 같은 데에는 교훈의 올바름, 말씀의 올바름을 말할 때 바로 이 건강이라는 '휘기아이네인'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또 디모데 후서 1장 13절, 4장 3절, 디도서 1장 9절, 꽤 여러 군데에서 교훈과 말씀의 올바름을 말할 때 이 건강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믿음의 온전함을 나타낼 때 '온전함'은 디도서 1장 13절에 사용하고 있고 인내, 인격적인 덕목의 온전함을 말할 때도 디도서 2장 2절에서 그렇게 '휘기아이네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건강함이라는 게 아무 단서 없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는 이 말이 꼭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 것이라는 확증도 없지만 이번 기회에 영혼이 잘된 자는 도대체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관계하느냐, 우리가 어제 범사에 삶에 주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살펴본 것처럼 오늘은 건강에 대한 말이 나온 김에 육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계하느냐, 그리고 궁극적으로 건강함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이 잘된 자에게는 어떤 내용의 건강함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추구해야 할 건강함 마음에 두어야 될 건강함이 도대체 어떤 건강함을 말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70년대 중반부터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님의 치유사역에 대한 논란이 많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던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총회에서 이단은 아니지만 사이비라고 규정하는 일까지 있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래서 그 병 고침의 예배를 참석해서, 조용기 목사님을 제가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 예배에 참석해서 보면 예배가 끝난 뒤에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어떤 환상이 떠오르면 그대로 예를 들면, 자궁에 혹이 있는 사람이 나았습니다, 아니면 간에 문제가 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해서 치료가 된 사람도 있고, 아멘하고 일어났지만 그냥 자기의 건강에 대한 소망의 표현으로 일어난 경우도 있고…

저는 그 치유사역 자체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께서 그러한 형태로 조용기 목사님의 예배 중의 기도를 통하여 치유사역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치유사역이 성경적으로 정당하냐를 변호하고 그렇게 치유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올바르냐 하는 것을 그르다고 성경구절을 통해서 논증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치유사역이 맞다고 변증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 치유사역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경구절이라는 것은 내 편의대로 갖다 붙이면, 다 짜깁기해서 갖다 모으면 얼마든지 내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고 변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오죽 했으면 마귀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공산주의조차도 성경에 근거되어 만들어 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구절을 끌어들여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액센트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액센트 게임.

여러분 액센트 게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중,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하던 건데 예를 들어 사자성어 중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액센트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돌아가면서 고진감래를 한 글자씩 액센트를 주어서 말을 하는 게임입니다.
내가 만약에 '**고**진감래' 했으면, 그 다음 사람은 '고**진**감래', 그 다음은 '고진**감**래', 그 다음은 또 '고진감**래**' 이렇게 돌아가며 하는 게임입니다.

이런 식으로 게임을 하는데, 게임을 할 때 제가 '고**진**감래' 하면, '진'자를 액센트를 넣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자, '감'자, '래'자 세 글자 모두 얘기를 해요. '고**진**감래' 말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액센트 게임을 우리의 신앙으로 갖고 와서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이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우리의 사업이 잘 되어야 한다, 내 자식이 서울대학에 들어가면 친척들이 그것을 보고 '아, 믿는 집안 아이가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도 건강해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하고 사업이 잘 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또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좇지 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형통도 주장하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는 얘기도 다 합니다. 천국에 소망을 갖고 살자는 얘기,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자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또 그 구절이 해당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잘해야 친척들이 전도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의 액센트가 가있는 겁니까, 사업의 성공에 마음의 액센트가 가있는 겁니까?
'고**진**감래'를 얘기할 때도 '진'자에 액센트가 있어도 '고, 감, 래' 자 얘기 다 해요.
치유사역에 문제가 있다면 액센트 게임의 문제라는 겁니다.

치유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마음을 경주할 때 마음과 뜻과 힘을 거기에 다 쏟고 있을 때, 도대체 어디에 액센트가 가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 십자가의 구속,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액센트가 어디 가있습니까?
'고진감래' 이 사자성어는 네 글자가 논리적으로, 즉 고통이(苦) 다하면(盡) 달콤한(甘) 시기가 온다(來),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다 얘기가 되요. 어느 한 글자에 액센트를 주어도 나머지 세 글자에 전혀 신경을 안 써도 저절로 따라 옵니다.
천국소망, 혹은 이 땅에서 모든 얘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액센트가 어디에 가있는 겁니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진짜 마음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치유사역의 분위기 속에서 내 몸의 건강에 온통 신경이 다 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사랑이 얘기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사랑의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치유사역의 현장에서 내 마음이 그 하나님사랑에 감격해서 이 세상으로 하나님과 손 붙잡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건강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온 마음이 다 치중되어 버린다면 액센트 게임에 의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현실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그 현실적인 특징은 도저히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광적으로 빠져들게 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실제로 일어나면… 영혼이 잘되면…
도저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사랑의 첫 번째 증세가 뭐예요?
그냥 이 세상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게 되면서 이 세상에서는 더 원하는 게 없을 만큼 마음에 만족과 기쁨, 감사와 행복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 때문에 …
돈만 만나도 행복하잖아요, 자식의 합격통지서만 만나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게 나타나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 그 무엇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을 만큼 굉장하고 궁극적인 행복을 찾을 수 없단 말입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내 몸의 건강이 그렇게 확대되어 보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사랑이 실제로 이루어지면… 액센트의 문제라는 거예요.
말은 끌어 붙이면 모든 교리를 다 정당화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논리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나님사랑이 최우선의 우리에게 떨어진 사명이라면 그 하나님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사랑에 참여하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도대체 내 육체의 건강이 제2차 3차의 문제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사도바울 이야기,
'여러 계시를 말한 것이 지극히 큼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내게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사자를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 몸에 두셨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니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여 짐이라'
영혼이 잘되기 위한 이 연합의 상태가 내 몸의 건강을 2차 3차로 미루게 되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도 '네 눈이 범죄 하면 네 눈알을 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쉽게 말하면,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 육체의 건강을 포기하라는 얘기까지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액센트 게임에 아주 주의를 집중해서 내 영혼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내 마음에 액센트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내 사업을 잘되게 해 주세요', 여러분 사업이 잘 못되어도 하나님 영광 안 가려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에 박해가 주어져서 집 뺏기고 논과 밭 모든 것을 다 뺏긴 상태로 도망자의 신세로 피난 가는 자들의 입장이 되어 사방으로 돌아다닐 때 그리스도의 영광은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 대학 떨어졌는데도 얼굴이 하나도 죽은 기미가 없고 밝고 쾌활하고 감사가 넘칠 때 오히려 하나님 영광이 더 나타나요.
사업 망한 집에 모두가 걱정하며 찾아왔는데 찬송이 울려 퍼질 때 더 오히려 영광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게 오히려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돈 없으면 쭈그러드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망한 상태에서 감사 찬송이 나올 때 오히려 사람들은 보고 차별화를 느끼면서 전도가 되고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이 망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나? 있을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영혼이 잘된 자에게 몸이란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몸이 뭡니까? 이 육체, 버릴 수도 죽일 수도 없잖아요, 이 몸이 뭐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 번 기억을 돌이킵니다.

공중이 있습니다, 내 인격의 소재, 내 마음의 소재요, '프쉬케' '혼'이라고 말하는 그 혼의 소재가 바로 공중입니다. 그 공중이 아래 몸을 중심으로 땅과 관계할 수 있고 위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하늘과 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몸이- 자연인의 상태가 어떤 상탠가 하면 우리

의 인격이 몸에 묶여 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말을 로마서 8장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라는 말을 해요. 그 다음 5절에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쫓는 자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몸의 오감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재료들에 대해 우리의 마음이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반응의 형태도 이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얄팍해진 지갑을 만지면서 마음이 근심을 합니다.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들려 전도여행을 보내십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일단 노잣돈이 든든해야 여행이 재미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배운 대로 오감관을 통해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 마음이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은 육신을 통하여 들어오는 오감관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이 땅의 환경에 대해 너희가 직접적으로 너희의 마음이 반응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이 공중에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 계신 천국이 있고 아래로 우리 몸이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으로 우리 마음이 향하게 될 때, 우리 몸에 묶여서 우리 몸을 쫓아갈 때에 우리 몸과 하나로 연합이 되어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게 되요.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자는 어떤 상태인가 하면 육신에서 빠져나온 상태입니다.
육체에서 마음이 빠져나오는 것,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어마어마한 일이냐?
불교, 힌두교, 도가와 명상, 노자 장자의 도교, 이런 모든 종교들, 그리고 마음수련, 이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마음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출가를 하고 평생을 수련하며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이 육체에서 우리 마음이 빠져나오는 것은 가정에서, 시장에서, 회사에서 할 수 있고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가능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가 항상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내 몸이 죽은 거라고 내 마음이 인정함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의 파워가 나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몸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날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동안은, 자 자식문제가 내 눈에 보입니다, 들립니다, 이럴 때 자식문제가 마음에 와 닿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봅니다.
돈 문제가 있습니다. 돈 문제를 보기 이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먼저 밝히 봅니다. 돈 문제가 마음에 와 닿기 전에…

결국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한 것은 찢기고 피 흘리고 고통스러운 몸으로부터 주님의

십자가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마음이 빠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좋은 길로 인도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에 참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아버지로서의 그 따뜻하심을 느끼면서 마음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자에게 몸이라는 게 뭐냐? 날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을 통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함을 통하여 빠져나와야 될 대상이라는 겁니다. 첫째 의미가… 빠져나와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몸의 건강을 챙기기 이전에, 지금 여러분의 몸이 아픕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혹시 그리스도를 믿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좋습니다. 이제는 몸이 낫기를 원하기 이전에 먼저 몸과 마음이 연합되어있는 이 죄적인 상태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죽어서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아픈 몸으로부터 내 마음이 빠져나오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약속이에요,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있는 동안 우리 마음이 좋은 길로 인도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먼저 기도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영혼이 잘된 자에게 있어 우리 육체가 갖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빠져 나오는 것이고 해방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잘 인도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제까지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내 몸에 나타난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내 생명이 나타난 거예요, 내 혼의 느낌이 나타났고 내 영혼의 소원이 나타났고 의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음을 통해서…

다른 모든 종교는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이고 제대로 되지도 않지만, 기독교는 어디서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빠져나와서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참여하게 되지요. 천국에 참여하게 될 때 내 영혼이 천국에 참여한 것이 분명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몸에 예수그리스도가 들어가십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 생각으로 몸이 움직여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 몸이 움직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몸의 두 번째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몸이 연합해요.

첫 번째,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인격이 하늘로 인도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 관계 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몸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몸이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게 그리스도니…' 내 몸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몸도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고 내 마음도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마음은 영혼이 좋은 길로 인도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아버지 그 사랑의 관계에 참여하게 되고, 몸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살고 계시던 그 그리스도 - 부활하셨잖아요?- 가 공생애를 사실 때는 당신의 몸 안에서 움직이셨지만 이제는 내 몸을 당신의 몸 삼으시고 그 영이 들어오셔서 움직여 가신다 이겁니다.
공생애 때 사시던 주님의 활동이 내 몸을 통하여 계속해서 움직여 가게 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으로 확장시켜갑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이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공생애 3년을 몸을 입고 사셨잖아요? 근데 이제는 주님의 몸이 부활하신 신령한 몸으로 돼서 아버지께로 갔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몸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몸이잖아요? 이 몸을 주님이 이용하셔서 공생애 때 당신이 움직이시던 것처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또, 로마서 6장 12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치 말고,… …,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제 영혼이 잘된 자가 추구해야 될 강건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합의 강건함입니다.
인내에도 강건함이라는 말을 썼고, 믿음에도 강건함이란 단어를 썼고, 물론 육체의 건강도 강건함이란 단어를 썼습니다마는 교훈에도 강건함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된 자가 주력해야 되는 진짜 강건함의 핵심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몸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강건함의 관심의 주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강건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내게 붙어 있어라, 제대로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제대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되니까…
이 연합의 강건함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특징은 이김입니다. 어떤 이김입니까?
예를 들면, 사도바울이 육체에 가시를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를 주신 이유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큼으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자고하지 않게 가시를 줌으로써 사도바

울이 아픔을 느끼고 자기의 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약함을 느끼게 되는 상태에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으나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내 능력이 네 몸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몸이 아픔을 통하여 사도바울의 마음이 낮아집니다. '내가 이런 몸을 갖고 어떻게 전도를 하나'

어떤 학자는 이 병이 간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간질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십자가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간질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고 경련을 하며 땅에 쓰러진다면 누가 그 복음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바울이 '주님,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또 간질이 나타날 경우에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전달이 되겠습니까? 간질을 앓고 있는 나, 도저히 나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못됩니다. 주님이 함께 해 주세요. 간질이 나타날지라도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의 힘으로 전도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 낮아짐, 몸이 아픔으로 낮아지면서 낮아짐을 이용해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서 주님과의 연합이 탄탄하게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내 몸이 아프던지 어떻든지 내 마음이 낮아져서 그리스도와 제대로 연합하는 것, 이 연합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건강한 거라는 말입니다. 영혼이 잘된 자가 추구하는 건강함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물어 봅니다.
헬렌 켈러는 건강한 자입니까, 병자입니까?
삼중고의 장애를 앓고 있었지만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죽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사지백체가 건강하고 오장육부가 든든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강원랜드에 와서 도박에 빠져 삽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폐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장애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육체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삶으로부터 자유로운 영혼이 됩니다. 그런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면 이 세상의 인생이 아름답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또 화상을 입은 우리의 딸 이지선 양은 화상을 당하기 전의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화상을 입은 후의 모습은 어쩌면 그렇게도 흉하게 되어버렸는지…
그런데 그 흉하게 생긴 몸을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그 몸에 갇혀서 거울을 보면 미쳐버리지 않는 게 다행이지요. 죽어야 마땅하고 자살해야 마땅하지요. 거울을 보며 몸에 갇혀서 이 몸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묶여 있다면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십자가로 떠날 때, 하나님과 주님의 천상의 교제에 참여함으로서 일단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다는 사도바울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합니까? 그 질그릇을 위해서 우리는 치우고 쓸고 닦고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경주하고 살아갑니까?
영혼이 잘된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영혼이 잘된 자의 특징은 이깁니다.
마음이 십자가복음의 힘을 빌어서 육체를 떠나면서 하늘에 참여하게 되면서 기쁨으로 이겨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유함입니다.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 일인데,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우리나라 1호 선교사님이셨는데 당시 94세이셨던 방지일 목사님께서 밴쿠버 지역을 방문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 계시는 은퇴하신 한국 목사님들 몇 분과 함께 호텔의 아침식사 자리에 초대를 했습니다. 초대를 해서 그분들을 대접하는데, 아시는 바처럼 캐나다나 미국 같은 곳의 아침식사는 여러 가지 달걀 요리와 베이컨 감자 그리고 각종 빵 야채 과일 등이 나옵니다.

뷔페라서 쭉 걸어서 음식을 집는데 갖고 오신 방지일 목사님의 음식을 보고 전부 다 기절을 한 겁니다. 미국산 베이컨이 아주 짭니다. 그런데 그 베이컨을 접시에 아홉 갠가를 담아 오셨어요. 그리고 토마토 두 쪽 말고는 아무것도 안 가져 오셨습니다.
식탁에서 그 짠 베이컨 아홉 개를 맨 입으로 드시는 겁니다. 토마토를 드시고, 그리고 머그잔이 아닌 찻잔이 받쳐진 커피 잔에 커피를 따라 드리니까 옆에 놓여 진 봉지설탕을 열 개 이상을 커피에 털어 넣으시는 겁니다.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그 설탕 곽 안에 있는 열 개가 넘는 모든 봉지의 설탕을 그 조그만 찻잔에 다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시고 한 76세 쯤 되신 원로목사님께서 보다 못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94세 되신 목사님으로서는 80세 아래 목사님들은 다 애송이 목사님이시겠지요.
“방 목사님, 도대체 식생활을 어떻게 하시기에 이 연세에도 온 세계를 다 다니시며 건강하게 사십니까?” 하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분이 안했으면 제가라도 여쭈어 보았을 겁니다.
그랬더니 방지일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이북 분이시거든요, “그냥 막 먹습네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정말 그 말씀대로 그냥 막 드시더라구요.

그 소금쪼가리 같은 베이컨 아홉 조각에 토마토 두 조각 그리고 설탕 십여 봉지를 그 작은 커피잔에 다 넣어서 드시는 94세 되시는 노 목사님, 그리고 온 사방을 다 다니십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00세가 다 되셨겠네요.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육체의 건강을 쫓지 않아도 영혼이 잘된 자에게는 자유함이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조차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영혼이 온전히 잘되지 못했고, 이 몸이 주님과의 연합이 강건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이루어지느냐, 산상수훈이 지켜지느냐 안 지켜지느냐,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날마다 우리 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짊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교제에 참여하게 돼서 거기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고 우리 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공생애를 사시던 그리스도께서 계속 내 몸을 빌리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이 율법의 거울에 비추어 볼 때, 율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추구할 수도 없는 자인 것이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율법을 이룰 수 없는 자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세요.
그럴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실 때에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 하신다고 그랬잖습니까?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이 들어와서 열매를 맺게 돼서 율법을 거울로 삼아 볼 때 그 율법의 요구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 환상적일 것 같아요.
그저 내게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이 이제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쟁취하려는 욕구가 생겨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의 만족은 하나님사랑을 통하여 다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움직여지는 모든 행동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움직이시는 것이므로 성경 어디를 비춰 보아도 내 행동이 어긋남이 없는 상태가 힘들여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어 지고 그런데도 자유함이 느껴지는 단계,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그냥 날마다 주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니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날마다 시간마다에서 구멍이 뚫리고 있는 것이겠지요. 주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시간이 비거나 날짜가 비거나 하기 때문일 것이에요.

영혼이 잘된 자가 추구해야 될 강건함은 육체의 강건함이 아닙니다.
육체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내 몸에 들어와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연합의 강건함이 우리가 액센트 게임을 통해서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내 진짜 건강함의 핵심내용이라 이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연합이 강건하게 하여 주심으로 내 몸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위가 율법의 거울을 만족케 할 수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은 하늘의 기쁨으로 찬양으로 감사로 넘치는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